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54호 1판 (음력 5월 8일) 2014년 6월 5일 목요일

윤장현 시장 당선 … 광주는 변화를 선택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
광주시교육감 장휘국·전남도교육감 장만채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자

장만채 전남교육감 당선자

새정치 광주, 전남·북 승리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같은 당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에 각각 당선됐다.

선거기간 중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했던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윤 후보가 승리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 번째 시민운동가 출신의 광역단체장이 탄생했다.

4선 국회의원인 이낙연 후보는 역대 전남지사 선거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선 6기 전남도를 이끌게 됐다.

윤 당선자는 5일 0시30분 (개표율 37.72%) 현재 57.36%를 득표해 33.06%를 얻은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다.

이 당선자는 같은 시간(개표율 42.07%) 77.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통합진보당 이성수(12.40%), 새누리당 이중효(10.12%)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윤 당선자는 광주시장 선거 초반,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강운태 후보에게 두 자릿수 이상 뒤지면서 고전했지만,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광주민심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빼앗은 '전략공천'을 주도한 안·김 공동대표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지역 리더십에 대한 열망과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전 선택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결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던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당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과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당내 후보 경선을 치열하게 통과했지만, 본선에서는 큰 승부처 없이 77.52%라는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올리며 190만 전남도민을 이끌 민선 6기 전남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의 현 교육감들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접전이 예상됐던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당선자가 45.8%로, 양형일 후보(33.7%)를 1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이며 압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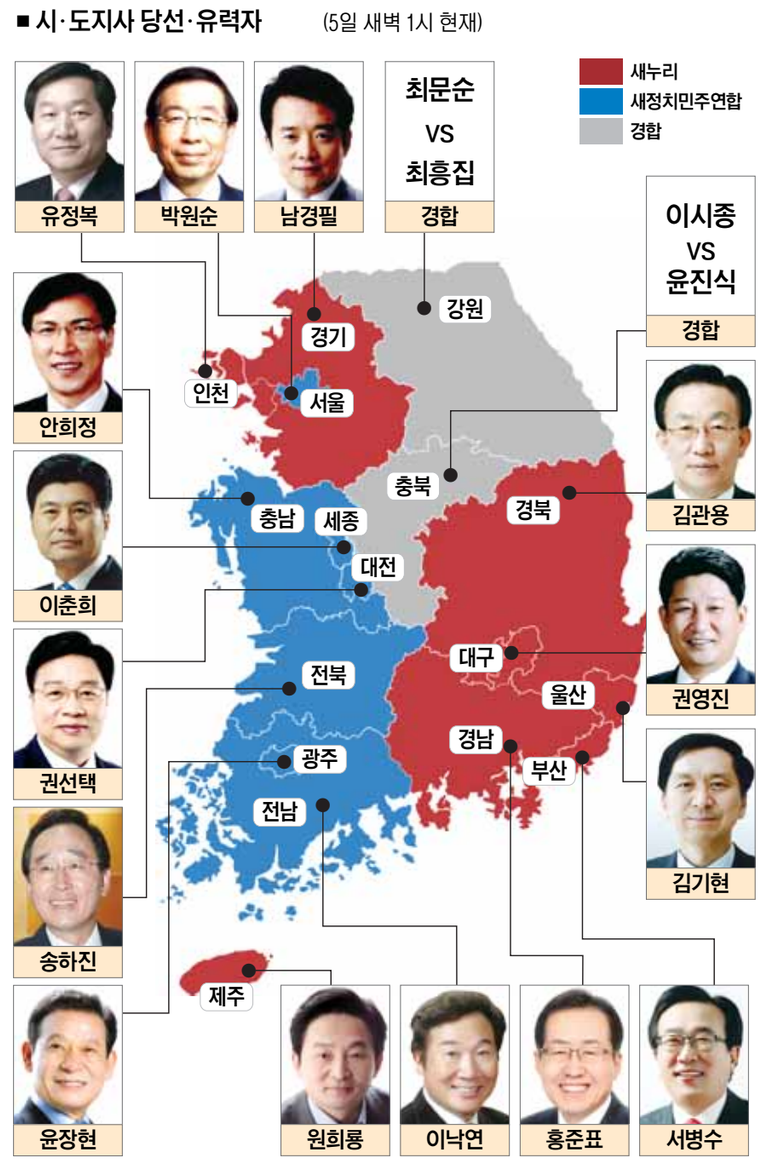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인 장만채 당선자가 55.5%를 득표해 김경택 후보(29.9%)와 김동철 후보(14.6%)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다. 광주·전남 모두 진보성향의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혁신학교와 보편적 교육복지 등 진보교육 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4 민심

시도지사·교육감 당선자	2
윤장현은 누구인가	3
기초단체장 당선자 얼굴	4
이낙연은 누구인가	5
격전지·이색 당선자들	6
완승 거둔 진보교육감	7
여론조사와 표심 차이 왜?	8
투표장 곳곳 추억 인증샷	10

■ 시·도지사 당선·유력자 (5일 새벽 1시 현재)



역전 또 역전 '개표 드라마'

4일 치러진 제6대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접전지가 많아 개표 드라마가 펼쳐졌다.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부산과 인천, 경기 등 접전지가 7곳이나 되면서 여야 지도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지방선거 승패 여부는 이날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5일 새벽 1시 현재, 새누리당이 5곳(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5곳(서울, 광주, 세종, 전남, 전북)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선 경기·인천 등 수도권 2곳을 포함해 부산과 충청권 전역이 오차범위 이내 접전지로 분류됐다.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된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10분, 20분마다 수차례 엎치락 뒤치락하며 치열한 경합을 이어갔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 후보를 다소 앞서 나가고 있으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바짝 뒤쫓은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개표 초반에는 오 후보가 서 후보를 다소 앞섰다.

하지만 자정을 넘어서부터 전세가 역전, 서 후보가 오 후보를 5%포인트 가량 안정적으로 앞서며 리드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중원'인 충청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빙의 리드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가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를 한 걸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사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가 초반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충북지사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지사 선거도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무소속 돌풍 … 기초단체장 8명 당선

모두 27곳에서 치러진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에서는 독식했지만 전남에서는 무소속 바람에 참패하며 8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목포·영광·보성 등 8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거전 과정에서 일었던 무소속 돌풍이 현실로 나타났다.

목포의 박홍률 후보, 영광의 김준성 후보, 보성의 이용부 후보, 장흥의 김성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후보를 각각 제치고 당선됐다. 특히 김준성·이용부·김성 후보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 후보를 제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또 순천에서 조충훈 현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허석 후보, 장성에서는 유두석 전 군수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현 군수 김양수 후보, 광양에서는 정현복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무 후보를 각각 제치고 무소속 바람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박우량 후보가 사퇴하면서 무소속 후보끼리 경쟁하고 있는 신안에서는 5일 새벽 1시 현재 고길호 전 군수가 김승규 후보에 앞서고 있다.

전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는 여수 주철현, 나주 강인규, 담양 최형식, 곡성 유근기, 구례 서기동, 고흥 박병종, 화순 구충곤, 강진 강진원, 완도 신우철, 해남 박철환, 진도 이동진, 영암 전동평, 무안 김철주, 함평 안병호 후보가 무소속 바람을 잠재우고 당선됐다. 영암의 전 후보는 3선에 도전하던 김일태 현 군수를 제압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